



발행인 장재성 / 편집인 정우식 / 발행일 2015년 5월 17일 / 560-837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fax227-0650)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제29호

2015년 5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그런 봄이었으면...



정우식 원장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문화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대단히 성황을 이룬 가운데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항상 음으로 양으로 우리 문화원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 함께 담습니다.

지금껏 우리 문화원이 일구고 이루어 온 활동들에는 스스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만, 이제껏 해온 일보다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할 일이 더 소중함을 잘 알기에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게 쌓아놓은 것도 한 순간 쉽게 무너지고 마는 세태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미는 삶의 이치를 항상 잊지 않고 새로운 10년을 고민하겠습니다.

어느새 성큼 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난히 기쁘게만 맞을 수 없었던 봄이었습니다. 4월과 5월, 이 봄이 이토록 아프고 힘들었던 건, 비단 세월호와 정부와 정치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독선과 허위가 지배해가는 전북교육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이 봄이 우리 삶에선 여전히 겨울의 지속임을 확인해 줍니다.

아직도 전라북도교육청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교육청 마당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피 투하는 천막농성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선적인 고집이 불러온 이런 ‘참사’는 전북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소통과 합의와 상생발전이라는 긍정적 기운보다는, 불통과 반목과 소모적 갈등이라는 암울한 기운만 잔뜩 확대재생산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자, 교육자들을 교육현장이 아니라 길바닥으로 내몬 죄를, 자신에게 의심 없이 표를 던져준 이들이 이제는 자신 때문에 치를 떨게 만든 폭력성을 참회해야 합니다. 천박한 자기변명에 불과한 법 타령, 권한 타령에 앞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수많은 이들의 삶을 생각하는 지성이 먼저 작동되어야 합니다. 자기성찰과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권력자는 이미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지도력은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뜻함과 헌신과 정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누리과정 문제가 매듭지어져, 이로 인해 흐트러지고 망가진 모든 이들의 삶이 봄처럼 복원되고 정상화하길 소망해 봅니다.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보내며 다시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챙기고 기릴 날이 적지 않았습디만, 이 5월에 진정 어린이를, 청소년을, 어버이를, 교사를, 이 땅의 민주화를, 우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년 봄엔 새싹 돋고 꽃이 피듯, 우리네 모든 아픈 삶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새살 돋고, 건강함 되찾는 그런 봄, 그런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실는순서

02 인사말-정우식원장

03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대히 열려
제38차 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 선임

04 창립 10주년 기념식 특집

10 교육이야기마당

14 이미영의 답사 이야기-자연·역사·문화·소통① 굴업도
태고의 신비를 지닌 섬, 굴업도기행

18 회원동정,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19 회원 가입 신청서

20 통일한마당대회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성대히 열려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 NGO로서,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실천적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감시 및 생산적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청소년문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온 우리 문화원이 지난 4월 22일(수) 저녁 6시30분, 전주 썬플라워 컨벤션 4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청소년 교육·문화 운동 10년을 향한 발돋움을 다짐했다.

(관련 기사는 4, 5면으로 이어집니다.)



제38차 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 선임

2014년 결산안 / 2015년 사업계획안 / 운영규칙 개정안 승인

이사장, 원장 재선임 / 권오인, 김현봉, 임동연, 최태숙 신임 이사 선임

제38차 이사회가 2월 4일(수) 오후 6시,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강유희, 김명희, 문채병, 서진용, 송승용, 신성하, 이미영, 장재성, 정우식, 정은숙 이사 등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10명이 참석하였다.

이사회는 2014년도 결산안과 2015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였다.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신설과 지역 분원 조항 신설에 따른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또 임기 만료된 ‘장재성 이사장, 정우식 원장, 남상팔 감사와 8인의 이사’ 가운데 강유희, 김명희, 송승용, 서진용, 신성하, 장재성 이사는 재선임 되었고, 임기 만료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노장환, 한은수, 최병훈, 정용문 이사의 후임으로는 권오인, 김현봉, 임동연, 최태숙 회원이 신임 이사로 선임 되었다.

신설된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에는 이미영 이사가, 지역분원장에는 순창분원장 양경자, 진안분원장 이상훈, 무주분원장 정용문, 정읍분원장 서진용, 고창분원장 문채병 회원 등이 승인되었다.



권 오 인
(부안제일교)



김 현 봉
(전주용소중)



임 동 연
(기아자동차 드림대리점)



최 태 숙
(김제여중)

창립 10주년, 새로운 발돋움

기념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행사 전에 일찌감치 방문하여 임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축하공연을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등 축하의 뜻을 전하였고, 이상직 국회의원,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과 교사, 학부모, 시민이 350여명 이상 참석하여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하였다. 전·현직 초·중·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다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우식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10년 동안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보고한 뒤, 장재성 이사장의 기념사와 이미영 초대 이사장의 회고사,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의 축사, 박세훈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전북대 교수)의 연대사와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이 대부분 교육과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함께 실천하며 살아온 때문인지, 행사는 시종일관 훈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소년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전라북도 청소년 문화의 역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축하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공간으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재성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1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북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 10년 동안 전북교육을 개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몸부림쳐 왔기에', 감히 '전북교육에서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창립부터 8년 동안 이사장을 맡아 문화원을 탄탄한 궤도에 올려놓은 이미영 초대 이사장(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은 회고사에서, '은 산하가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사월'이지만, '1년 전 세월호 참사로 잃은 못다 핀 꽃송이들을 생각하며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4월'이며, '아이들을 위해 땀흘려보자고 마음을 모아 청소년 단체를 설립하고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회원 대다수가 초·중등 교사들이기에, 주중에는 퇴근 후에 사무실에 모여서 사업을 기획·준비하였고, 주말에는 소외계층 청소년들과 농촌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화 체험교실, 독서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였으며, '회원 선생님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발로 댄 열정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어려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우리 단체가 진행한 독서교실은 매년 도내 초·중등학교 10여 곳에 직접 책과 교사들을 지원해서 독서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하였고, 전국에도 사례를 발표하고 확산시킨 점은 가슴 뿌듯' 하며,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15년 동안 그토록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던 점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연인원 5,000여 명의 청소년들과 행사를 진행하며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일 년 내내 긴장하며 살아야 했'지만, '개인적으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여행과 답사 활동을 좋아해서 교사,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다고 술회했다.

끝으로 '바야흐로 이제는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융합해서 모두가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해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길 기대' 한다는 말로 끝맺었다.

축하 공연에서는 봄 개나리 빛깔의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이리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야금 연주와 병창으로 부른 민요 가락이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우었다. 관객들은 모두 아이들의 친진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 들었다. 모두 방과후활동 시간에 갈고닦은 솜씨여서 더욱 빛났다.

이어진 소중연 선생의 첼로 연주는 기념식장을 풍성하게 가득 채웠다. 격조 높은 선율만으로도 참석자들은 모두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열화와 같은 앙골요청이 쏟아졌다. 반주는 유혜원 회원이 도왔다.





축하공연의 마지막은 문화원 활동가들의 함께 노래 부르
기 순서가 장식했다. 집행부 등을 맡아 애쓰고 있는 활동가
들이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짬이
몇 차례 모여 연습한 것이어서 노래 실력을 떠나 의미가 컸
다. 먼저 부른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는 세월호 1주년을
맞아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끝으로 독도, 통일, 하나 됨을
생각하며 '홀로 아리랑' 을 모두 함께 부르면서 행사를 마
쳤다.



한편 우리 문화원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이 뜻을 모아 1999년 11월 전신인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를 창립하여 5년간 활동하다가, 점차 활동영역이 커지고 대중화됨에 따라 2005년 2월 사단법인
(초대 이사장 이미영)으로 확대 개편한 교육시민운동 조직이다.

'교육의 희망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의 발전과 청소년 문화의 창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 교육·
문화 단체가 필요하다' 는 공감 아래 '교육 일반,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통일교육, 지역교육 등과 관련한 거대 담론부터
작은 실천까지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의 장을 열어 나갈 것' 을 바라는 전북지역 초·중·고 교사,
학부모, 대학 교수, 교육 관련 인사 및 시민들이 모여 만든 청소년 교육·문화 단체이며, 현재는 정기회비 납부 회원만 450
여 명에 이르는 전북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단체로 성장하여 위상에 걸맞은 활발한 실천적 활동을 펼쳐왔다.

2005년 창립, 그리고 입상

작은 출발...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행사/생태/인생문화/행사/전시/농촌문화/전시/문화/전시/전시" 제형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안팎의 청소년 교육·문화 환경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중·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실천을 해왔습니다.

교육복지 활동 / 나눔과 봉사 실천

"고촌기회 배움터" 공모 사업을 통해 4년간 2억 7천여만 원의 지원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0년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금 1,121만
원을 11개 지역아동센터 등지에 100여명 지원하는 등, 지역 후원과 기부, 장학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교육정책 개발 / 연구

교육정책포럼, 세미나와 연구·조사, 전문가 초청강연, 대안, 지역교육간담회를 통해 '교육
복지, 학교폭력, 혁신학교, 주춤, 주일학교, 도시, 농촌' 등 교육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연구
함으로써, 전북의 교육정책 향방을 제시해왔습니다.

통일교육 활동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고자, 2001년 6·15주년을 기념하여,
전신인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설립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북 청소년 통일연수'를
진행하고, '북녘 어린이 꿈나무 보내기' 사업을 펼치는 등 통일교육과 활동을 실천해왔습니다.

교사 연수 / 인문학 강좌 / 초청강연

논술교육, 학교폭력 예방, 강령포럼 등 지역적정향 주제로, 식량연수·학대연수·아카데미 등
각종 교사 연수를 개설하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강화
하는 한편, 인문학 강좌와 초청강연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기성장 능력과 통찰력과 안목 향상을
피해왔습니다.

◆ 상징 해설



우주(해·달)와 문화와 어른·아이가 어우러진 무지개 빛깔 나무로 형상화

문화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의지의 표상

☞ 곧고 풍성한 나무는

청소년(어린이)의 꿈과 희망, 건강한 교육과 다양
한 문화 활동을,

☞ 무지개 빛깔의 다채로운 동그라미가 서로 잇닿은 모습은

'청소년(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네
트워크,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주체(지역주민-교
사-청소년)의 소통과 어울림을 의미한다.

곧, **꿈**이 움트는 나무,

문화가 꽃피는 나무,

희망이 영그는 나무이다.

◆ 설립 취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교육의 희망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의 발전과 청소년 문화의 창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 교육·문화 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교육 일반,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통일교육, 지역교육 등과 관련한 거대 담론부터 작은 실천까지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의 장을 열어나갈 것'을 바라는 전북지역 초·중·고 교사, 학부모, 대학 교수, 교육 관련 인사 및 시민들이 모여 만든 청소년 교육·문화 단체이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이러한 염원과 취지를 실천하고 실현하고자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 전개, 주5일제 수업 대비 대안 마련,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계기 사업 전개,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성 확대'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 문화 활동 및 행사 운영과 지원 ▶학교 및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연수 및 협력 지원 ▶통일과 관련한 교육 및 문화 사업 ▶교육 관련 자료 개발과 수집 및 출판 사업 ▶교육과 관련한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다.

2005년 2월 18일

10년 동안 우리 문화원이 펼쳐온 주요활동을 분야별로 간추려본다.

◆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역사·문화/환경·생태/전통문화/봉사/독서/농촌 문화/도시문화/과학’ 체험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척박한 전북의 청소년 교육·문화 환경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중·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실천.

◆ **교육복지 활동 / 나눔과 봉사 실천:** ‘고른기회 배움터’ 공모 사업을 통해 4년간 2억 7천여만 원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0년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금 모금액 1,121만원 전액을 11개 지역아동센터 등지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각종 후원과 기부, 김장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와 나눔 실천.

◆ **교육정책 개발 / 연구:** 교육정책토론회, 세미나와 연구·조사, 전문가 초청강좌, 대담, 지역교육간담회를 통해 ‘교육복지, 학교폭력, 혁신학교, 논술, 주5일제, 독서, 통일’ 등 교육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연구함으로써, 전북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

◆ **통일교육 활동:**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고자, 2001년 6·15 1주년을 기념하며, 전신인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시절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북 청소년 통일한마당’을 진행하고, ‘북녘 어린이 쿵우유 보내기’ 사업을 펼치는 등 통일교육과 활동 실천.

◆ **교사 연수 / 인문학 강좌 / 초청강연:** 논술교육, 학교폭력 예방, 감정코칭 등 시의적절한 주제로, 직무연수·워크숍·아카데미 등 각종 교사 연수를 개설하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학 강좌와 초청강연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기성찰 능력과 통찰력과 안목 향상 도모.

◆ **독서교육 활동:** 초·중·고 현직 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년·어린이 독서교실/독서캠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사들의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의 대응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독서교육을 전북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반화하고, 확산.

◆ **주5일 수업제 대안 마련:** 아무도 관심두지 않을 때, 토론회와 연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주5일 수업제 정착에 기여.

◆ **향토·역사·문화 걷기/기행:** 향토·역사·문화·문학·통일·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각종 기행과 걷기 및 문화체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토와 문화에 대한 애정과 교양을 높이고, 일상의 삶에서 지친 자신을 성찰하고 힐링하는 기회 제공.

◆ **교육 행·재정 감시 / 지역 연대와 네트워크 강화:** 교육현안에 대한 성명·논평 발표와 보도자료·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 행·재정을 감시하는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 NGO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가며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 실천.



◆ 연혁 / 주요 활동

1999.11	전신인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창립(초대 소장 박일범)	2010.07	'행복학교 추진단' 발족식/초청강연회
2001.06	제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미당'(~현재):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통일교육 활성화 기여	2010.07	'혁신학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구' 진행 전북혁신학교 선도
2003.07	제1회 '청소년 독서캠프'(~2011년): 독서교육 일반화-학교 정착 주도	2010.11	어린이·청소년 독서한미당 전시/체험 부스 운영
		2010.11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문화원의 밤 모금액 총 1,121만5천 원 전액과 기증 도서 등을 11개 지역아동센터 등에 100만 원 기량씩 지원
2005.02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초대 이사장 이미영 원장 박기업)	2011.02	제4대 정우식 원장 취임
2005.04	사단법인 설립 인가/법인 등기 완료	2011.02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수행기관 지정: 4,500만 원 교육소외계층 지원
2005.03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봉사/독서/전통문화/역사/환경·생태/농촌/도시 체험교실 운영(~현재): 주5일제 부분 시행 대비 대안 프로그램	2011.09	농촌체험 완주공정여행
2005.05	'교육정책 세미나(~현재) [주5일 수업 대안, 청소년 방과 후 문화활동, 논술교육,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북교육 진단, 교원평가제, 교육감선거 정책 제안, 학생인권조례, 교육감 평가 등	2011.09	'기울 아카데미'(~2011.10)
2005.12	북녘 어린이 콩우유 보내기 사업 시작(~현재)	2012.02	향토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걷기(~현재)
2005.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제정/시상(~현재)	2012.03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 발족 주도 주5일 전면 시행 대비
2007.08	제1회 '독서와 논리·논술 교육 지도자 과정' 직무연수	2012.04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중등)
2008.03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수행기관 지정: 총 7천만 원 교육소외계층 지원	2012.04	과학연구 초청공연: 초·중학생 각 200명에게 과학 체험 기회/키트 제공
2008.11	'소외계층 청소년 자원과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모금액 총 777만 3천 원 전액 지원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에 4백만 원 영세 지역아동센터에 377만 3천 원 전달	2012.07	'김정코칭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직무연수(초등)
2009.02	사무실 이전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 근영여고 앞	2012.12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문화원의 밤: 모금액 1,000여만 원 전액을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2009.02	제2대 이미영 이사장 취임	2013.02	제3대 장재성 이사장, 제5대 정우식 원장 취임
2009.02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수행기관 지정: 총 8천여만 원 교육소외계층 지원	2014.01	상산고 교회사 교과서 채택철회 피켓시위
2009.05	체육한미당 제1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현재)	2014.09	제4회 '전북청소년통일한미당' 통일노래가사비평가대회/통일길거리(33)농구대회
2009.06	'희망의 인문학 강좌' 진행	2014.10	교육이야기마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2009.12	'교사 아카데미'	2014.11	향토·역사·문화 기행: 군산 선유도
2010.02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수행기관 지정: 총 7,000만 원 교육소외계층 지원	2014.12	교육이야기마당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성을 꿈꾸며'
2010.04	전북교육감선거 정책공약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2010.05)	2014.12	제10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식
		2015.02	2015 정기총회
		2015.02	교육이야기마당 '지역교육과 자유학기제: 이미영 전북지역 교육연구소장'
		2015.03	교육이야기마당 '전북지역 학교급식 실태와 개선방안'
		2015.04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밖에도 일상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성명/논평/보도자료/기자회견 발표 등 교육 NGO 활동, 소식지 발간, 각종 기행(향토/역사/문화/문학/통일), 교사 동아리/교과모임, 교육정책토론회/초청강연/지역교육간담회/대담/기획회의/교양강좌/연수/워크숍, 시민사회단체 연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 전개

교육이야기마당

[편집자 주] 우리 문화원에서 매달 진행하는 '교육이야기마당'은 교육 현안을 비롯해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교육의제를 설정하여 전문가 초청 발제와 함께 토론이 이어지는, 말 그대로 교육 이야기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들어 첫 번째 「교육이야기마당」은 주제를 '지역교육과 자유학기제'로 정하고, 2월 24일(화) 저녁 7시,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을 모셨다. 3월 31일에는 이종원 익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주무관, 4월 28일에는 『교육, 혁신을 꿈꾸다』의 저자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를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며 보통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4월 교육이야기마당]

교육, 혁신을 꿈꾸다

『교육, 혁신을 꿈꾸다』 저자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초청

최재완 편집실장

국어사전은 '혁신(革新)'을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정의한다. 일부에서는 '혁신이 별거 있냐?'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혁신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단어의 쓰임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을 혁신하고, 학교를 혁신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공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슬프고 가혹한 용어 사용임에 틀림없다. 교육과 혁신이라는 단어의 조합 자체만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실패를 이미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이 새롭게 거듭나야함을 당위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졸업한 성인들은 그들의 학창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성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 학교와 교육을 탓한다. 폐륜 범죄가 발생하면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타하고,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부실을 지적하고, 주변국과의 과거사 분쟁이 발생하면 역사교육 문제를 꼬집는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근원을 학교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 역시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공교육의 문제점을 단순히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힘들다. 공교육 혁신의 주체와 혁신의 대상 사이를 오고가는 학교와 교사들 역시 지금의 현실이 괴롭다.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이며, 학교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도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변화와 노력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학교 안팎의 문제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 교육의 변화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원은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주관으로 『교육, 혁신을 꿈꾸다』의 저자인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를 모시고 4월 교육이야기 마당을 진행하였다.

이경한 교수의 저서 『교육, 혁신을 꿈꾸다』는 2012~2013년에 월간지 '열린 전북'에 연재한 글들을 모아 다섯 개의 꼭지로 묶어 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육혁신은 수업혁신이다」, 「교육혁신은 학교문화운동이다」, 「교육혁신은 공교육 살리기이다」, 「교육혁신은 교육자치의 실현이다」, 「교육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꼭지마다 소주제를 설정하고 교육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경한 교수는 먼저 책의 첫 장에 써어있는 '친구 영기에게'에 대한 의미 설명, 곧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 본격적인 교육혁신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갔다.

발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을 교육 권력의 이동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교육 권력은 여전히 교육주체, 즉 교사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기 부정'을 통해 얼마나 스스로를 깨고 나올 수 있는가가 혁신의 핵심이다.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집합체인 교사들이 '자기부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깨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의 노력은 점차 확산되어 교사 집단 전체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전북의 혁신학교가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혁신학교라고 늘 성과만 가질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실패의 기록이 없다면, 기존의 '연구학교' 학교처럼 '실패한 연구학교가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고 말 것이며, 이는 결국 혁신학교 또한 실패한 교육운동이 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패한 사례를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며, 실패 과정 속에서 낙오하거나 쓰러진 이들을 방관하지 말고 보듬어 안고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중심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혁신학교를 비롯한 지금의 교육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세상을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경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그 시기, 교육혁신의 주체이자 변혁의 대상이기도 한 교사들의 입장과 어려움, 교육 권력의 이동과 학교와 교사의 입장 등이었다.

4월 교육이야기마당은 최근 교육의 화두인 교육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우리 문화원은 교육NGO로서 교육혁신에 늘 관심 갖고 노력해온 단체이기에,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이야기마당이 새롭거나 늦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혁신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보다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 학교급식 실태와 개선방안”

이종원(익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주무관) 초청



3월 교육이야기마당은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이종원 주무관(익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을 초청하여 “전북지역 학교급식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3월 31일(화) 저녁 6시30분 문화원 교육실에서 진행하였다.

이종원 주무관은 ‘구호(원조)급식(50~60년대)→영양급식(70~80년대)→교육급식(90~2000년대)→(교육)복지 급식(2010년대)’으로 관점이 변화한 학교급식의 역사를 먼저 살펴본 뒤, 학교급식의 특징, 학교급식 식재료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학교급식의 원칙 ‘무상(의무)·교육권·복지권 차원, ‘친환경’-건강권 차원, ‘로컬푸드’-지역성 차원, ‘식생활 교육’-교육 및 지속가능성 차원과 학교급식(공급)지원센터 운영의 1,2,3원칙[1교(教)-‘교육’적 관점 견지, 2협(協)-‘협력’, ‘협치’의 관점 견지, 3안(安)-‘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을 소개하고, 학교급식(공급)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 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의 기능을 단순 식재료 공급에서 ‘교육, 지역농업 및 경제 등을 포괄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기존 식재료 공급시스템인 지역제한경쟁입찰(B2B) 방식(기초지자체 단위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식품군별 입찰(단위 학교 설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금액 제시 업체 낙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전북교육청이 택하고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B2B) 방식은 급식재료 조달과정의 비리 가능성 차단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중심의 식재료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원산지나 안전성, 품질 등 주요 기준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달규모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식재료의 안전성은 생산에서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으나, B2B 방식은 교육당국, 학부모 등 소비단계에서의 검수를 통한 관리 이외에는 현실적인 관리 방법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 및 농가와의 연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데다, 기상재해나 작황부진 등 수급불안정 요인에 쉽게 대처할 수 없으며, 폐이퍼 컴퍼니 난립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불법 가능성이 있었다.

끝으로 ‘학교급식은 일방적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군 및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기존 공급업체의 공공영역 편입 방안’ 등 시장기능 의존에서 공공기능 활용 식재료 공급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장성 있고 깊이 있는 발제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소홀히 여겨온 학교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역교육과 자유학기제”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 기조발제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

전북지역교육연구소(소장 이미영)가 주관하는 2015년 첫 번째 교육이야기마당은 2월 24일(화)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지역교육과 자유학기제]였다.

이미영 소장이 발제를 한 후, 의미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의미,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등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하였다.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교육부가 2016학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미 올해부터 강원, 광주, 대구는 모든 중학교 100% 시행, 경기 90%, 서울 70% 등 오히려 교육부 권고 수준인 50%보다 앞서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개 학기동안 종이에 쓰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말한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진로에 대하여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중학생 시기에 진로와 진학에 대한 비전을 찾아주는 교육과정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학기제를 주목하고 이번 이야기마당이 큰 의미가 있었다.

이미영 소장은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려면 지역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제 하였다. 지역사회와 결합, 학부모와 전문가의 교육기부 활성화, 지역사회 지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결합력을 급속도로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학교폭력, 중도탈락, 기초학력 문제 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교사들도 통합교과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지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30일의 보도에 의하면, 선문대학교는 당일 오후 교내에서 진보로 분류되는 최고진 교육감의 세종특별자치교육청과 자유학기제의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경남도교육청도 4월 말에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으로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등의 연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도는 거리를 두고 있는가? 전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선부르게 판단하며, 교육부의 핵심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진보적인 교육운동가들은 초·중·고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즉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교육이 한결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시도하고, 준비하고,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보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태고의 신비를 지닌 섬, 굴업도 기행

- 지켜야 할 사명감을 준 아름답고 아린 섬 -

[편집자 주] 우리 문화원의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님이 지난해 퇴임 후 교직을 떠나, 요즘 전북의 교사들이 그토록 부러워한다는 일반인(^)이 되셨다. 지리교육과 출신이어서인지 일종의 답사중독증(?)이 있는 이미영 소장님은 여전히 교육 실천 활동을 하시는 짬짬이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전국을 누비신다. 그런 탓에 주위에서 부러운 시샘이 넘친다. 혼자만 호사를 누린다는 이런 시샘을 의식하셨는지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래서 답사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회원들과 함께 나누자고 글 연재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최근 다녀오신 굴업도 기행을 씁니다. 국토 구석구석을 답사하며 선생이 느낀 이 땅의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를 우리도 함께 더듬으며, 사람 더불어 자연과의 진정한 교감과 소통을 배워가기를 소망한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



2015.4.25~26(1박 2일)

굴업도라는 섬 이름은 이전에 핵 폐기장 건설, 대기업 골프장 건설계획 등으로 심심찮게 이름이 오르내릴 때 들은 정도였다. 그러나 굴업도를 다녀온 뒤, 섬은 내게 특별한 곳이 되어버렸다.

굴업도는 인천에서 약 90km 떨어진 섬으로,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주민 10여 가구 20여명의 작은 섬이다. 인천에서 덕적도까지, 다시 덕적도에서 배를 갈아타고 3시간여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다.

굴업도에 도착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한 황홀한 풍경과 맞닥뜨리면, 녀을 잃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굴업도를 답사하면서 만난 중생대 화산활동의 흔적, 섬과 섬을 연결한 사주, 거대한 사구와 해식애, 다양한 식물 생태계 등은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이자, 생태계의 보고였다.



섬을 대하면서 몇 년 전 여행했던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칼 호수 '알 혼' 섬의 영상이 겹쳐지는 것은 왜일까? 그만큼 천연의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이고, 섬에서 내뿜는 태곳적 신비한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이리라.

빼어난 해안지형과 다양한 생태계는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였다. 답사를 마치고 섬을 떠나면서 굴업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 민박집 주인으로부터 굴업도의 98%가 거대기업 CJ의 소유로 되었으며, 내년부터 대규모 리조트와 골프장 등 관광단지로 개발된다는 아픈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첫날 (4.25 토)

굴업도는 홀수 일에 들어와야 뱃길이 수월하다. 인천에서 굴업도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어 덕적도에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데, 홀수 일에 웅진군을 순회하는 배가 굴업도를 먼저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굴업도는 면적 1.7km², 해안선 길이 12km의 작은 섬으로, 중생대 백악기말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다. 곳곳에 화산 활동의 모습이 보인다. 큰 섬과 작은 섬 둘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 섬은 사주(모래톱)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

민박집에 여장을 풀고 첫날, 섬 트레킹에 나섰다. 마을에서 목기미 해수욕장과 사구를 지나 최고봉인 덕물산(138m)에 올랐다가 다시 코끼리바위를 거쳐 마을로 돌아오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경로이다. 비교적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걷기에 수월했지만, 덕물산을 오르는 구간은 급경사로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구릉에서 바라본 서해 바다와 굴업도의 경관은 연신 탄성을 자아낸다.

봄이 늦은 굴업도에는 때마침 진달래, 벚꽃, 산복숭아꽃이 온 산에 흐드러지게 피었고, 흰민들레꽃, 옥녀꽃대 등 야생화가 지천에 널려있다.

저녁식사 후 뒷산을 올라가 바다로 떨어지는 일몰과 장엄한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 굴업도 사구



▲ 마을 뒷산 산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 (언니와 함께)



▲ 사빈해안(목기미 해수욕장) : 고운 모래 드넓은 백사장이 압도적이다.



▲ 개머리해안 침식지형이 비경이다.



▲ 거대한 코끼리바위



▲역새밭에서 야생화 된 사슴가족이 먹이를 먹고 있다.

4.26(이틀째 일)

오늘은 역새와 초원으로 이루어진 마을 오른쪽 방면 큰 섬을 3시간 정도 트레킹하고 점심 식사 후 배를 타기로 하였다. 20여분 오르자, 이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역새밭 능선을 걸으며 해안 침식지형인 절벽으로 이루어진 경관을 감상하였다. 잠시 역새밭에 누워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니 절로 마음이 고요하다.

아열대성 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선 구간에서 어미 사슴을 만났다. 예전 이곳에 사슴목장이 있었는데, 당시 압수 한 쌍이 우리를 탈출하여 지금은 십 수 마리의 야생 사슴가족이 되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사슴 가족 10여 마리가 저 멀리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경이로운 풍경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 일행을 바라보며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노라니, 이곳은 사슴들이 주인임을 깨닫는다. 대기업은 이 넓은 구릉지대 초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눈독을 들인다고 하였다.

섬 끄트머리에 자리한 해식애로 이루어진 개머리언덕은 등산 애호가인 비박꾼들의 천국이다. 이날에도 대여섯 팀이 비박을 하고 텐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부모와 함께 비박을 했다는 중1 남학생을 만났는데 제법 의젓하다. 돌아 나오는 길, 아쉬움에 연신 멈추기를 여러 번, 넓은 큰말해수욕장 해변을 걸어 민박집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선착장으로 향하였다.

고개를 넘는 길목, 분꽃나무는 향기를 내뿜는데 웅기종기 평화롭게 모여 있는 마을의 운명은 앞으로 어떠한지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꽃게잡이 나가는 배 한척 주변엔 어부와 갈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 안에 다시 굴업도를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덕적도 행 배에 올랐다.



▲ 비박객의 텐트 앞에서 포즈 ^^



▲ 아름다운 능선이 그림처럼 놓여있다.



▲ 개머리언덕에서 바라본 큰말 해수욕장

얼레지 따라 걷는 봄 개울 길

- 엄마 몰래 숨겨둔 아이의 간식 같은 완주 신흥계곡 -

장재성 이사장



▲ 얼레지꽃



바쁜 신학기 일정 때문에 3월 걷기는 거르고, 4월에 새봄 새순을 따라 나섰다. 신흥계곡은 재작년에도 화암사와 함께 찾았던 곳이다. 그때는 이른 봄 들꽃 친구들-복수초, 변산바람꽃, 나도바람꽃-을 찾아 온 길이었지만, 이번은 4월이라서 느낌이 약간 달랐다. 노루귀는 이미 시들하고, 귀공자 같은 얼레지만 귀 쫄긋하게 무성하였다.

신흥계곡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사시사철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다. 마치 엄마 몰래 숨겨둔 아이의 간식 같은 곳이다. 하나씩 꺼내먹는 맛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날은 비 온 직후라서 물이 많아 더 매력이 있었다.

깊은 개울은 아니지만 비 갠 뒤 물길은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누구는 발이 빠지고, 누구는 돌아서 바위 건너가고, 누구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안전한 길을 제공하는 등 물을 여러 번 건너자 작은 절이 나왔다.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 사찰에서 방문객을 꺼릴 듯하여 일행은 그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에 마침 장날이라 고산 장터를 둘러본 뒤, 고산 한우장터에서 점심을 먹는데, 모두들 고산 장터 한우가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줄 처음 알았다고 한다. 1층에서 고기를 사서, 2층 식당에서 먹는 구조였다. 우리는 가볍게 갈비탕이나 한 그릇 할 요량으로 올라갔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 여기 모인 거구나.’ 장날인데도 한가해 보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전주 덕진과 인근 사람들이리라. 모두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고산 한우의 유명세에 흠족해 하며 하루를 마쳤다.

눈길 아름다움 한껏 감춰둔 내장산(內藏山)

1월 2일, 토요일은 아니지만, 새해 시무식을 겸하기 위하여 걷기 날짜로 정하였다.

눈 오는 날 내장산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전주에서 출발할 때는 눈이 거의 없었는데 정읍이 가까울수록 길어지더니, 내장산에 도착할 즈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발이 푹푹 빠지도록 많은 눈이 내렸다. 내장저수지 지나 주차장 근방 진입로 단풍 터널 길에선 아름다움에 취해 모두 차에서 내려 사진 찍기 바빴다. 입구까지 퍼붓던 눈이, 주차하면서 찾아들어 걷기에 운치가 있었다. 눈 내린 직후여서 찾길까지 점유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눈이 등산화의 목을 넘기도 하지만 많이 춥지 않은 날씨에 차도 거의 없고 사람도 없어서 눈 내리는 내장산을 즐기기에 알맞았다.

내장사 입구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중턱으로 올라 사진을 찍고 눈 쌓인 내장산을 감상하는 일행은 걷기를 한다기보다 소풍을 나온 소년 소녀들의 풍경이었다.

산에서 내려와 점심은 산채정식으로 하였다. 미식가인 정우식 원장이 추천한 집에서 산중 진미를 맛보았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꾸준히 찾는지 알 만큼 정성 가득한 상을 받았다. 음식은 주인의 정성으로 맛이 갈라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는 날이었다.

전주로 오는 길에 전주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이동희 관장님과 환담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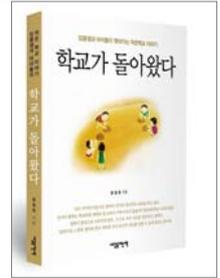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환영! 신입 회원(가입일 순)

- 고이석(부안고)
- 김정서(부안계화중)
- 김성권(자영업)
- 박연수(전북교육차치시민연대)
- 조경호(지역농업연구원 원장)
- 손성모(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회원동지/연대

▶ ***축 출간*** 윤일호 회원(진안장승초)께서 지으신 '킹콩 샘과 아이들이 엮어가는 작은학교 이야기 『학교가 돌아왔다』가 '내일을 여는 책'에서 출간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축 결혼*** 우리 회원이신 김수희(완주고산초) 선생님께서 4월 5일, 결혼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기원합니다.

▶ ***축 명예퇴직*** 세 분 선생님께서 2월말,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명예 퇴임하셨습니다. 학교 밖 새 삶에서도 행복 더욱 넘치시길 바랍니다.

박기업(전북기계공고) 박종구(전주서중) 양연임(익산부천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지난 4월 28일(화) 오전 11시 전주 '기억의 광장(풍남문 광장)'에서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결성 회의 및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2014년 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한 고등학생이 제안하여 시작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기억과 성찰, 과거 범죄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및 배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추구의 의지를 모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할 것에 뜻을 모았다.

우리 문화원은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에 참가 단체(4월 28일 현재 54단체 참여)로 동참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기억의 상징이다. 소녀의 뜯겨진 머리, 그 뒤에 드리운 할머니 그림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이 백발의 할머니가 될 때까지 겪은 고통의 세월을 형상화한다. 소녀 옆에는 의자를 세워 시민, 청소년, 어린이가 곁에 앉아 연대를 약속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는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사업방향을 잡아 5천명을 목표로 추진위원(애칭 '평화나비') 모집 및 기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비는 1만 원 이상 1회 납부하면 되고, 참여한 개인과 단체의 이름은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록된다.



제막식은 8월 13일(목)에 가지며, 건립 예정지는 전주 '기억의 광장(풍남문 광장)'이다.

5월 30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과 함께 하는 '평화콘서트', 6월 중에는 평화 기행이 예정되어 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회비입금 /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하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통장 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추천인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고지와 동의

* 용도 : 회비 출금과 단체소식을 알리는 등에 사용.
 * 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 ~ 회원 탈퇴일 까지.
 귀하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서명:) 동의하지 않음(서명:)

이름	회원(), 후원회원()	
생년월일	(남,여)	E-mail
직업 / 직장		담당업무(교과)
직장전화		집전화
손전화		
우편물 수령주소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CMS (회비자동이체)

회비 납부	예금주	생년월일			
	월이체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매월이체일자	<input type="checkbox"/> 2일 <input type="checkbox"/> 23일	
	계좌번호	(은행명)			

개인의 금융정보 일부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용도 : CMS 자동이체 회비 납부와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사용.
 * 기간 : 서비스제공 동의일 ~ CMS 해지일(탈퇴일)까지.
 - 납부하신 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음.
 - 귀하는 이와 같은 금융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생년월일)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생년월일)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서명:) 동의하지 않음(서명:)

* 관심 분야(2개 √ 표)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정책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인권 · 복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문화 · 동아리
<input type="checkbox"/> 독서교육	<input type="checkbox"/> 초등교육	<input type="checkbox"/> 통일 · 역사
<input type="checkbox"/> 지역교육 · 교육자치	<input type="checkbox"/> 환경 · 생태	<input type="checkbox"/> 학급운영
<input type="checkbox"/> 진로 · 상담	<input type="checkbox"/> 성교육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교육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 정보	<input type="checkbox"/> 학교운영위	기타()

2 0 년 월 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노의마2015

제15회 전북청소년
동일한바라다

2015. 5. 30(토)

대회종목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초·중·고등학생 총 20팀(학교당 2팀 이내)

09:30~12:30 /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3층) [시계탑 건물]

길거리(3:3)농구대회 남자 고등학생 총 40팀(팀당 5인)

09:00~16:00 / 전주비전대학교 야외운동장

참가대상

전라북도 초·중·고등학생

시 상

노·가·바

전주대총장상, 전주교대총장상, 전주시장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장상(변동 가능)

길거리 농구

우승 / 준우승 / 3위 2팀 / 8강 4팀

문의처 : www.blue21.or.kr / ☎ 905-0218

주최: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후원:  **전주대학교**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